



트레이시 와이 브라우닝
자매
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

연필의 교훈

저는 예전에 자메이카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그곳에서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,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기 위해 그 주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. 나란히 앉은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.

나이가 좀 더 어려 보이는 한 소녀는 끝에 달린 지우개가 다 닳아 버린 아주 짧은 연필만 한 자루 갖고 있었습니다. 그 소녀는 그 연필로 힘겹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. 좀 더 나이가 많은 듯 보이는 다른 소녀는 옆에 앉은 소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. 그 소녀는 자신의 연필을 건넸습니다. 어린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연필을 받았고,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.

저는 그 언니인 소녀가 동생이 그림을 완성하는 동안 끈기 있게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어린 소녀는 연필을 다시 큰 소녀에게 건넸습니다.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 돌아가면서 연필을 썼습니다. 큰 소녀는 가까이 돕고자 했고, 작은 소녀는 그 도움을 정말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. 둘은 서로 의지할 수 있음을

알았습니다.

모든 어린이가 그림을 완성한 뒤, 저는 큰 소녀에게 연필을 나누어 쓰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. “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?”

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“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.”

어린 소녀에게도 질문했습니다. “옆에 앉은 언니가 도와줬을 때 마음이 어땠어?”

그 어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진짜 고마웠어요!”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.

때로 우리는 성약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의문스러워합니다. 우리는 그것을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! 저는 한 어린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성약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.

누군가를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단순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곧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키고 있는 것임을 간증합니다.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●

로리 풀러 소사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가져옴.

나도문장본 어린이: 사랑

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

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기 위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!

